

COACHING NEW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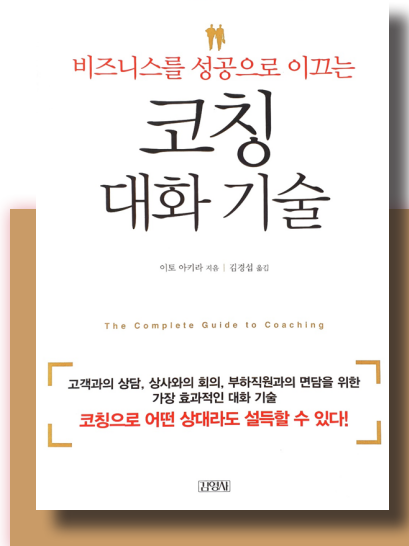
코칭뉴스레터 9,10월_제47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코칭 대화 기술』

| 글쓴이 : 정현철 목사



저자 이토 아키라 | 역자 김경섭 |
김영사 출판 | 2005 | 페이지수 212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자인 이토 아키라는 ‘코칭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설명을, 번역을 한 김경섭은 ‘코칭으로 어떤 상대라도 설득할 수 있도록 즉시 실행해 볼 수 있는 완벽한 코칭 가이드’라고 호평을 하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강력하게 도전받은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코칭을 위해 3가지 포인트를 이해하라!

저자는 “코칭이 도대체 뭘까?”에 답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로

- ①답은 상대에게 있다,
- ②상대의 내면에는 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③그 답과 해결 능력을 끌어내는 프로세스가 코칭이며, 그런 프로세스를 실천하는 사람이 코치이다”(19~20p)고 조언한다.

2019년 말부터 코칭을 하면서 피코치로 훈련받고, 또 코치로서 피코치들과 1:1 팔로업 코칭을 계속하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답은 피코치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답을 해결하고자 직접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람은 코치가 아닌 피코치 자신이라는 것’이다.

다만 코치는 피코치가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직접 실행하도록 도전을 주고,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이끄는 안내자(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게 되었다.

2. 상대방의 이야기를 재촉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라!!

저자 이토 아키라는 코칭 대화가 보통의 대화와 다른 점을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 중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을 ‘상대를 재촉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다린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이 뭐야?”,

“간단히 요점을 정리해서 말해줘!”라며



상대를 재촉하는데,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속 이야기를 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48~53p). 천천히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상대의 답과 능력을 끌어낼 수 있기에 ‘기다리는 대화’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부분이었다. 목회자로서 답을 주려고 하거나,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말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잖이 있었는데) 성급하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개입을 해서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칭을 하면서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부분을 깨닫고 의식하게 되면서 그나마 상담과 대화를 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성경에서 많이 읽고 보았는데, 왜 일찍 이런 통찰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코칭 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3. 상대를 코칭 모드로 전환시키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상시에 목적을 가진 코칭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상대방이 코칭 모드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문장을 넣어, 대화할 것을 당부한다. 예를 들어, “컨디션은 어때?”, “요즘 활기가 넘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있단데.” 이런 말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이 ‘허락’임을 제안한다. 허락은 “지금부터 코칭 대화를 하고 싶는데 괜찮겠나?”라는 승인을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99p).

코칭은 상대의 내면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이며, 평소 하기 어려운 말을 하게 하는 것이기에 자기 마

음대로 코칭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허락을 구하는 한마디를 건네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당부한다. 예를 들면, “잠깐 그 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바쁜 건 알지만,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부탁해도 괜찮을까?”, “코칭을 배웠기 때문에 시험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의 대화와 다른 차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으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할 것을 제시한다(100~101p).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며, 에티켓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칭 대화는 마음속 깊은 방문을 여는 열쇠(Key)이기에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깊은 코칭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 개인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코칭 대화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신 능력 있는 코치이심을 깨닫게 된다. 동일교회 공동체가 코칭 사역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소망’을 꿈꿔 본다.

● 글쓴이: 정현철 목사(서울동일침례교회 담임목사). 정현철牧사는 셀장 2명을 코칭하여 든든한 코치로 길러내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에 코칭 문화를 뿌리내려가고 있다.

